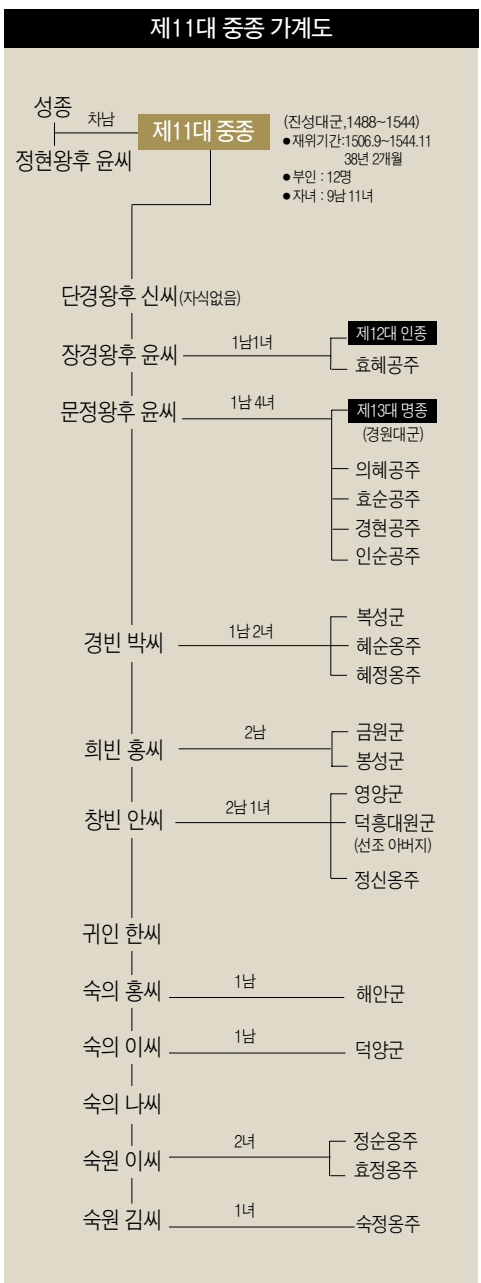


반정공신 세력에 주도권 내준 힘 없는 왕



11대 중종-정릉

11대 중종 - 정릉
중종 (1488~1544) 57세, 재위 38년 2개월, 1506.9(19세)~1544.11(57세)



정릉 춘유석

그날 밤 진성대군은 뜰 눈으로 밤을 새웠다. 거사를 통보받고 문고리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떠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거사가 실패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 1506년 9월 1일 밤, 현란한 색깔로 치장한 단풍이 어둠에 묻혀 하릴없이 떨어지고 있다. 박원종·유순정·성희안 등의 얼굴이 비장하다. 그들의 지시를 받은 군사감부정 신윤무, 군사시첩장 박영문 등은 무사들을 이끌고 인사홍·신수근의 집에 들이닥쳐 살해했다. 이어서 궁중에 들어가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의 허락을 받아 연산군을 폐위시켰다. 중종반정이라 불리는 거사는 성공했다.

이튿날 아침, 19세 진성대군은 왕이 되었다. 거사에서 그가 한 역할은 아무 것도 없다. 가슴 죄며 벌벌 떨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미미할 수 밖에. 38년이나 왕위에 있다가, 죽어서도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무덤이 옮겨졌다.

중종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며 연산군의 이복동생이다. 반정 세력의 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다. 왕위에 올랐지만 반정공신들의 세력에 밀려 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신세력을 견제할 방도를 모색한 끝에 신진 사림 세력자 급진 개혁론자인 조광조를 등용했다. 조광조를 장악하고 있던 공신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철저한 유교정치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연산군 때 파괴되었던 여론제도 등 유교정치의 복구와 교화의 강화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개혁정치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성리학을 장려하고 사화를 입은 사람들을 복권시키는 한편, 훈문관을 강화

했다. 1517년 중국의 여씨향약을 본받아 전국적으로 향약을 실시하여 향촌을 성리학적 질서로 편성했다. 유교적 질서를 굳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애썼다. 불교가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소격서를 폐지하여 도교적인 의식을 없애는 한편, 도교 제도를 폐지하고 도성 안에 새로이 절을 짓지 못하게 하는 등 불교를 억눌렀다.

생모 정현왕후 윤씨의 불심으로 연산군 때 살벌했던 불교 능력이 약간 주춤했으나, 큰 흐름은 여전히 척벌정책이었다.

중종 2년(1507), 승과를 합법적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승과가 폐지됨으로써 선종, 교종의 종단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승과는 각 종단에서 종파별로 응시했으며 승과에 의해 승려의 종파를 구별 짓고 있었다. 선·교 양종으로 나뉘어 있던 종파가 무종파

왕권 강화·유교적 정치 복구 위해 척불정책 시행 승과 공식 폐지로 승려 지위 추락·파계승 등 기승



중종 정자각 뒤쪽의 침도



중종 무인석 절린 코

정릉(靖陵)은

11대 중종의 능이다. 중종은 성종의 둘째 아들로 1494년 진성대군에 봉해졌다. 1506년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되었다. 중종이 승하하자 아들 인종은 선왕을 경기도 고양에 매장하고 묘호를 중종, 능호를 희릉으로 했다. 그 후 현재 서삼릉 능역에 있는 제1계비 정경왕후 윤씨의 능인 희릉 오른쪽 언덕에 정릉을 조성했다.

1562년(명종 17)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의 주장으로 중종의 능은 지금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천장했다. 문정왕후는 봉은사 주지 보우와 의논하여 능을 옮겼다. 풍수적으로 불길한 자리에 선왕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정릉은 지대가 낮아서 여름철에는 재실까지 강물이 들어 보듯하는 많은 비움을 들어야 했다. 그런 중에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왕비들은 부득이 다른 곳(태릉)을 택했다. 3명의 왕후를 두기도 중종의 능은 단풍이다. 원비 단경왕후 신씨는 온릉(경기도 양주시 정흥면 일명리), 제1계비 정경왕후 신씨는 희릉(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능역), 제2계비 문정왕후 윤씨는 태릉(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부부가 흩어져 네 개의 능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의 능은 모두 42기이다. 약 10%를 중종 부부가 차지했다. 역대 왕 중 최이다. 왕과 정비, 계비가 오순도순 모여 있으면 좋으련만, 아버지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인 선릉이 곁에 있다.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른다. 사적 199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번지, 면적 24만 586㎡.

혼란현상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승려의 사회적 지위 추락은 물론 덕망 있는 자가 승려가 되려고 하지 않고 무뢰한 무리나 범죄자, 떠돌이 유민들이 승려가 되었다. 따라서 파계승이 늘고 가짜승이 출현하여 사찰을 거점으로 도적떼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불교에 대한 유생들의 횡포도 자행되었다. 중종 4년에 유생들이 청계사의 경첩을 훔쳐가고, 5년 3월에는 흥천사 사리각에 방화했다. 또한 각 도에 험악한 절들의 전답을 향교에 속하게 했다. 7년에는 흥천사와 흥덕사의 종을 녹여 총통을 만들었다. 원각사를 헐어 그 목재를 민가에 나누어주고 경주의 등불을 녹여 무기를 만들었다. 11년에는, <경국대전>에 수록된 도첩조를 지워서 빼어 버렸다.

연산군 때 선종본산 흥천사와 교종본산 흥덕사가 폐사됨으로써 양종은 발발할 곳을 잃고 가까스로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종이 승과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양종은 이듬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태종에 의해 7종으로, 세종에 의해 양종으로 축소된 불교 종단은 중종에 와서 양종마저 사라졌다. 그는 실패한 군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민교 의지했던 조광조 일파의 지나친 도학적 언행에 염증을 느낀 중종은 반정공신 위훈삭제사건을 계기로 훈구대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조광조, 김경, 김시 등 신진 사림을 숙청해 버렸다. 기묘사화이다. 중종은 57세로 승하했다.

글=이우상 (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www.sungjongsas.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영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이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광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정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문양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량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상승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직위지와 실제 경쇠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직 가진시 맥놀이도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복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광식(중요문화유산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 (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웅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 (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중무소 전화 : (033)343-0103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어느새 가을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별해 십여년 이상의 시간속에서 성공적인 만남의 성혼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큰 보람으로 일 해 왔습니다. 성혼이 늦어지신 분들께는 더 좋은 만남으로 인연을 만나시기 바라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일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보시는 마음으로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11월 부터 - 12월까지 희비의 반만 받고 회원등록해 드립니다.

인연의 갈매기 좋은인연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 288-2944

◆ 대우·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